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다시 수면위로

## 지리산 댐은 국토부 강행에 관련예산 전액 삭감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가 반대해 무산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월 4일 함양군과 산청군에서 열린 도·군정 현안보고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함양과 산청이 서로 싸우면 어느 한 곳도 유치가 성공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적극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했다.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것.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경남 산청군이 중산리관광지~장터목 인공간 5.2km, 함양군이 백두동~망바위간 3.4km,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운천지구~노고단 하단부간 4.3km, 전북 남원시가 반선지구~중봉간 6.6km에 각각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는 2012년 6월 산청, 함양, 구례, 남원군의 잇따른 신청에 환경부가 환경 약화를 들어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설치장소를 단일화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후 4개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유치전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도지사의 단일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공동행동준비위원회와 종교·시민단체 활동가, 시민 등은 지리산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지리산은 역사의 보고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라며 "자연공원을

### 홍준표 지사 "적극 중재로 유치"

### 종교환경단체 "돈벌이용" 반대

### 국토부 "지리산댐도 짓겠다"

범까지 개악하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리산을 '돈벌이용 절탐공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함양 문정댐) 건설 방침을 밝혀 지역 주민과 종교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국토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년)'을 통해 함양 일천에 문정



지리산댐 3D 조감도. 종교환경단체들은 용유담, 실상사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댐은 저수용량 1억 7000만㎥로 투입예산은 1조 원에 달한다.

이 댐이 건설되면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하고 후 보류 상태인 함양 용유담이 수몰되며 실상사 등도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시 용수수급 전망을 비롯해 수자원 필요량 산정 시 4대강 살리

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예산 확보시 댐 건설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길 없는 길' 다시 연다

수덕사 4월 16~18일 국제禪 수행대회 개최

경허선사 열반100주기를 기념해 열린 국제선 수행대회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 2차대회가 4월 16~18일 개최된다.

한국선불교 법맥을 잇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 출재가자의 무차대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선수행대회는 덕숭총림 방장 실정 스님의 특별법문과 함께 수불 스님, 대봉 스님, 대진 스님, 청안 스님 등이 선수행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6일 만공 스님 탄신다례를 시작으로 황하루에서 설정 스님의 법문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저녁에는 이후 경허선사 추모음악회가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수불 스님의 법문에 이어 자유철야정진이 진행된다.

17일에는 경허 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행사가 가야사터를 시작해



백제의 미소길, 서산마애불, 보원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원사 터에서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의 법문이 진행되며 간월암 참배 이후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 법문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 익산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합동훈련

익산시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중요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합동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익산시는 2월 14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익산소방서와 합동으로 보물 825호 승림사 보광전 지붕 및 주변 야산에 낙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조치 및 신고절차, 초기진압활동, 인명구조활동, 중요문화재 반출, 산림연소 방어를 실시했다.

또 익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

공사의 협조를 받아 승림사, 석불사, 나바위성당의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경비인력 및 관리자에게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수인원으로 관내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고도 익산의 문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엔 불교가 없다?

###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불교콘텐츠 배제

광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불교콘텐츠가 없어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0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5조 2900억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되며 광주 시내에 6개의 권역을 설정해 각종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하지만 아시아 문화교류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아시아 문화의 기반을 제공한 불교는 제외돼 있다.

광주시는 201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할 총 50개 사업(2275억원 규모)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8건, 기 승인사업 9건, 계속사업 23건 등이다.

이중 2014년 추진할 신규사업은 아시아 도자 역사문화공원 조성, 아시아 미디어스퀘어 조성, 산업단지 아트팩토리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분야 10건과 아시아예술품거래센터 건립, 아시아광고 문화축전 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분야 5건,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강화 분야 3건 등 총

18건이다. 이중 불교관련 콘텐츠는 전무한 상황.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교콘텐츠는 전무했다.

특히 광주 양림동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교류권역 사업에 근대 기독교의 선교지와 교회들이 포함된 상대적인 소외감은 더하다.

문제는 불교계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회장이 공석 중인 광주불교계의 대표단체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수 년째 큰 부침을 겪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불교계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콘텐츠 배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전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는 광주불교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6개 본사와 각 사찰들이 연합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신규사업들이 추가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불교콘텐츠를 추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문빈정사, 고문헌 자료 디지털화 협약식

"근대불교에 사셨던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호남지역 근대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일반인들에게 전해진다. 문빈정사(주지 법선 스님)는 2월 7일 전남대 도서관(관장 마재숙 의학과 교수)과 '고문헌 자료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빈정사에 소장되어 있던 고문헌 163책의 목록과 원문을 디지털화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고문헌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문빈정사의 고문헌은 남도 불교 최고 강백이었던 석산 스님(1901~1985, 전 범어사 강주)이 수집을 시작한 이후 지선 스님(백양사 주사)이 보강해 간직해온 문헌들로, 호남지역의 불교문화를 밝히는 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불교 의식집인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등은 1400년대와 1500년대에 호남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경 서적들로 국내에 몇 권 남지 않은 희귀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선 스님은 "호남불교를 연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엔 연구가 되는 자료들은 광주에는 없는 근대불교의 자료로 당시 서책을 만든 많은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느껴지고, 서지학과 서체학의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유물도 지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잘 보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담당할 마재숙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문빈정사의 불교전적 및 기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호남지역 불교연구 및 한국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는 1959년 창건된 이후 불교교육과 실천적 불교 운동에 참여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등 사회개혁운동을 실천해 왔다.

## 광주불교의 '불교 힐링아카데미'가 뜬다

### 자비신행회, 불교 힐링아카데미 개설

광주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오는 4월 3일~6월 26일까지 전체 13강에 걸쳐 '멘토들과 함께 떠나는 힐링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강사에는 △현장 스님(대원사 회주), 티벳불교에서 배우는 내적치유의 힘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삶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삶의 시작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더불어 나누는 힘 자비! 그 안에 담긴 힐링 △각각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마음이란 무엇인가 △해강 스님(실상사 주지), 선재동자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법민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어느 누가 아프지 않나라 △연광 스님(증심사 주지), 행복을 꿈꾸는 종교,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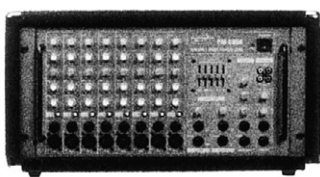
복을 꿈꾸는 그대 △해광 스님(정토사 주지), 聞思修!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삶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참사람운동을 통해 만난 힐링 △무문 스님(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행복을 위한 디딤돌, 계율과 자기치유 △법능 스님(불지사 주지), 법능 스님의 노래이야기, △붓다라카파 스님(보리수선원장), 내 생애 단 한번뿐인 오늘 등이 참여한다. 강연은 100분간의 힐링강연과 강사와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임영광 자비신행회 화엄학림 학장은 "이번 힐링 여행은 마음의 치유와 평화, 더불어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민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術



파워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경신대도 빛으로 생명을 연장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는 수육보영 진법으로 천안 도안 심안 영안 해안을 열어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 득도하는 천하 제일의 계사년 대운맛이 천안통 대법회

육경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벗기는 생명과 운명  
을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속명통 신축통 루진통을  
열어 상통천문 하달지리 근본 진광 진법으로 모든  
생명은 빛에서 왔기에 경신일은 하늘이 응하고 지구가  
답하며 마음을 빛으로 열어 몸에 빙의된 귀신 잡  
신 일체 영가들 까지도 자시와 오시에 모든 죄업과  
번뇌마장까지도 진광의 빛으로 쓸어버려 생명을 연  
장하고 성불득도는 물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장애없이 성장 발전 승리하는 지구촌 최상의 기도인  
것이고 운명을 연장 100세에 도전하며,

이제는 방편불교가 끝나 말년 말법을 지키는 하일드 말찰삼 미륵달마 도법으로 자성이 들어 다니는 문을 보아 성불 득도하는 금강진법 사구계로 10년을 염불, 묵묵, 참선, 만경, 글과 문자 수행한 공덕보다도 한 번의 경신수행으로 천안통을 열어 성불 득도하는 천하제일의 수행인 것이며 도는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를 깨닫는 것이 각자 선이고 도통인 것이다. 고로 수행 마당은 자기조상 해탈 갖한 영가가 마음속에 제일 큰 도둑으로 조종하고 강도중에 제일 큰 강도는 세월인 것을 경신일에 일체 마장을 몰아내어 병 없는 건강 운명 천지공사를 빛으로 몰아내어 큰대업과 명예 출세 통치 경영 종교 예술 정치 경제등 큰 뜻이 있거나 성불 득도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성현이 되는 빛으로 화려하며 종교종파를 초월하는 무량수 시대에 360세와 100세에 경신 빛으로 도전 천하를 다스리는 도왕 열쇠를

얻어 평생 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지구촌 최대의 일류스승되는 것이고 몸에 붙은 천신 만신 빙의신은 한방 양방 병원에서 잡지 못하는 것을 경신도법만이 자기 대에서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해원상생법이고 모태 유산 일체 청춘 몽달 조상영가들과 결혼, 직장, 질병, 술병, 노름으로 탕진하는 정신병 육신병 귀신병을 소멸하는 육경신 대법회로 앞서가는 스승되소서, 나무아미타불

※ 풍수지리 진법 제왕 금시발복 한국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이 되는 성불득도는 씨가 없는 천하 명당터 정가 30만원 (종사자나 인연자는 50% 할인)

-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부터 2시간 특별 명명천지공사 강의
- 기도입제 :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밤해시
- 기도해제 :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밤해시

- 육경신 기도비 150만원 (침식제공) 6회 분할가능
- 준비를 간편한 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선탠속 접수

농협 029-01-167866 광 한영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태일대사, 010-7228-8567 일진스님  
웅조미륵달마 육경신도통회 총본산 생명과 운명을 연장  
싹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불선원 태양의 집



거부정자로 시는 불미유입자 : 태일  
02)821-6622/010-3239-3110